

평강공주와 <경희>의 삶 연구

이 금 희*

차 례

- | | |
|---------------------|------------------------|
| 1. 서론 | 4. 정체성 찾기와 하나님의 딸-<경희> |
| 2. 억압과 울음 | 4-1). 정체성 찾기 |
| 3. 정체성 확립과 초월성-평강공주 | 4-2). 하나님의 딸 |
| 3-1). 정체성 확립 | 5. 결론 |
| 3-2). 초월성 | |

1. 서론

새 천 년을 맞이한 오늘날, 천 년 전에 비해 인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천 년 전의 이야기(설화)와 20세기의 이야기(근대소설)에는 인간들의 삶의 양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가? 특히 시대에 따라 여성의 지위나 활동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여성들은 수많은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여 자신의 삶을 성취할 수 있었는가? 이 논문의 출발은 이러한 물음에서 시작되었다.

본고에서는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성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인물들 중에서 고구려의 평강공주¹⁾와 20세기에 활동했던 나혜석의 작품 <경희

* 상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김부식, 『삼국사기』, 권45. <은달>에 나오는 평강공주.

>2)를 택했다. 이 두 작품을 선택한 이유로는 지금까지 여성의 주체적인 삶을 논의할 때 두 작품이 각각 고전과 근대 작품으로써만 주로 논의되었을 뿐 천 년이라는 시간³⁾ 속에서 살핀 업적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⁴⁾. 천 년을 전, 후로 한 긴 시간 속에서 여성들을 지속적으로 억압해 온 실체는 무엇이고, 여성들이 억압당했을 때 그 대응양상은 어떠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이 회구하는 삶을 성취하기 위해 두 여성은 각기 당대에서 어떠한 삶을 영위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본고에서의 이러한 의도는 설화 속의 여성과 근대 여성작가가 형상화한 여성의 삶을 비교하여 천 년 전부터, 아니 그보다 더 먼 시대로부터 여성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선택한 삶의 방식과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한 후에 전개된 삶의 양상이 어떠했는지를 총체적으로 헤명하고자 한다.

2. 억압과 울음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편찬했던 고려시대에는 여성들이 조선조의 여성들보다 훨씬 자유로웠다. 고려시대의 결혼풍속을 보면 ‘서류부가혼(婿留婦家婚)’ 또는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이라 하여 결혼한 후 사위가 아내 집에 머무르거나 남자가 여자의 집에서 살았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결혼한다는 것은 오늘날과는 달리 남자가 처가에서 사는 것을 의미했다. 조선초기에 만들어진

2) 1918년 3월 『여자계』 제2호에 발표. 나혜석(1896-1946년)은 김명순(1896-1951년)과 더불어 1910-20년대에 활동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작가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서정자 엮음, 『한국여성소설선 1』(갑인출판사, 1991) 참조. 서정자, 『한국근대여성소설 연구』(국학자료원, 1999) 참조, 한국여성소설연구회 지음, 『페미니즘과 소설비평』(근대편)(한길사, 1995) 참조. 본 논문에서 텍스트로 삼은 <경희>는, 서정자 엮음, 『한국여성소설선 1』으로 본 논문에서 인용할 때는 <경희> 면수만 밝히겠음.

3) 고구려 때(평원왕의 재위기간은 559-590)의 이야기로 보면 1400여 년이고, 김부식(1075-1151)이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의 이야기라 해도 800여 년이 된다.

4) 평강공주에 대한 것으로는, 김대숙, 『한국설화문학연구』(집문당, 1994). 이혜순, 『김부식의 여성관과 유교주의』, 『고전문학연구』11집(한국고전문학회, 1996). 등이 있고, <경희>는 주2) 참조.

고려시대의 족보를 보면 부계와 모계가 모두 중시되는 양측적 친속제도(兩側的 親屬制度)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쪽으로도 계보를 따졌고, 상속도 아들과 딸에게 균등하게 이루어졌다. 또 딸이 친정제사를 지낼 수도 있었고, '윤희 봉사'라 하여 아들과 딸들이 번갈아가며 제사를 주관하기도 하여 남녀차별도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장성한 아들이 있어도 어머니가 호주가 되기도 하여 오히려 여성의 인권이 오늘날보다 더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려시대의 이러한 사회제도로 인해 제사상속도 후손이 없을 경우엔 양자를 들며 입후하지 않고 외손봉사를 했다.⁵⁾

또한 고려시대에는 여성들의 재혼이나 종교활동도 비교적 자유로웠다.

고려시대 여성들은 유교가 요구하는 부덕이란 규범으로 자신의 생활을 강요당하지 않아도 되었다. 여성들이 남편과 사별 후 재혼한다고 해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았음은 물론, 오히려 재가해서 남편이 남긴 자식을 보호하며 성장시키는 것이 여성의 덕목으로 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 성종비인 문덕왕후 유씨나 충선왕비인 순천허씨는 왕과의 결혼이 초혼이 아니고 재혼이었다. 또한 여성들 가운데는 제사와 관련된 祈恩使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기도 했으며 사찰에 재산을 시주하면서 종교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⁶⁾

이처럼 조선조의 여성들보다 여성의 인권이 훨씬 보장된 고려시대라 해도 김부식은 동양사상에 근거하여 여성을 陰으로, 남성을 陽으로 인식했다. 『삼국사기』에 수록된 평강공주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그 설화의 중심내용은 평강공주이나 문현에 기록된 것은 공주의 남편 <온달>조에 들어 있다. 이는 조선조 태종 때 몇몇 관리들이 고려시대의 혼인제도를 비판하면서, '음이 양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양이 음을 다르니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자, 태종이 적극 진영제를 장려⁷⁾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많은 사람들은 평강공주의 행위를 사회적으로 파소 평가하여 '평강의 성취는 온달의 역량을

5) 고려시대의 여성에 대해서는, 이배용 외,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청년사, 1999), 30-34면 참조. 정창권, 「조선 후기 장편 여성소설 연구」(고려대 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12, 11-14면, 참조.

6) 정창권, 앞의 논문, 13-14면.

7) 이배용 외, 앞의 책, 34면.

통한 것이고, 평강 스스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도와서, 남편이 전공을 세움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⁸⁾

평강공주가 궁중이라는 최상의 공간에서 생활하면서도 자주 울었던 이유는 설화 속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궁중이라는 틀, 아버지의 세계라는 기존의 틀 속에서 만족하지 못해서였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려서부터 주체성이 강했던 공주에게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세계가 자신을 억압하는 견고한 성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주체성이 강한 공주가 억압된 주변의 세계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어린 시절에는 울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출했다.

딸의 울음에 대응하여 부왕은 ‘너는 놀 울기만 하여 나의 귀를 요란스럽게 하니 커서도 사대부의 아내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바보 온달에게 시집보내겠다.’고 戲言했다. 부왕의 이 말에는 왕을 중심으로 한 사대부와 온달이라는 사회적 신분이 대립되어 있다. 절대권자를 중심으로 한 지배계층과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피지배계층이 확연하게 구분된다. 온달은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극한 효성으로 홀어머니를 섬기나, 세상에서의 평가는 물질을 중시하여 그를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부왕도 왕으로서 온달의 가난을 구제하지 못했으면서도 물질적인 가치로써 온달을 바보로 평가한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딸도 아버지를 귀찮게 하면, 곧 아버지라는 질서 속에 편입되지 않으면 사회의 가장 하층인 바보에게 시집보내서 고생하게 하겠다는 言中有骨을 드러내어 공주를 억압한다. 이에 비해 공주는 절대권자에게 무조건 복종하지 않고 아버지라는 현실의 벽을 뛰어넘으려 했다. 아버지로 상징되는 억압된 세계 속에서는 비범한 능력을 지닌 공주의 마음과 뜻을 꺾 수가 없기 때문에 그녀는 그것을 울음으로 드러낸 것이다.

부왕의 딸이라는 신분으로 억압된 공주는 또 다시 결혼문제로 아버지와 갈등관계를 갖는다. 공주가 자라서 16세가 되자, 부왕은 딸을 上部의 고씨에게 시집보내려 했다. 이에 공주는 ‘대왕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너를 꼭 온달에

8) 김대숙, 『한국설화문학연구』(집문당, 1994), 142면. 그러나 설화의 끝에 보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온달도 평강공주의 손길이 없으면 죽음의 길도 갈 수 없는 불완전한 인물임이 드러난다. 이에 대한 것은 ‘3·2) 초월성’에서 다시 논의함.

게 시집보내겠다”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무슨 까닭으로 전에 하신 말씀을 고치십니까? 匹夫도 오히려 食糧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 하물며 지존하신 분의 말씀으로 어찌 그리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王者에게는 戲言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대왕께서 명하신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소녀는 감히 그 명령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고 항변했다. 이 같은 공주의 항변 속에는 上都 고씨와 바보 온달, 王과 匹夫라는 신분계층간의 위상이 날카롭게 대립되어 있다. 억압된 세계 속에서 주체적으로 살기를 원했던 공주는 처음에 우는 것으로 아버지에게 불만족스러움을 드러냈으나, 점점 자람에 따라 억압된 세계에 대한 대응 방식이 달라진다. 곧 잘못된 아버지의 질서를 논리적으로 따져 묻는다는 것은 울음의 또 다른 방식이자 울음의 확장이다. 딸의 울음에는 부왕이 戲言으로 대응했으나 논리적인 대응에는 부녀가 같은 공간에 머물 수 없을 정도로 갈등이 첨예해졌다.

주체성이 강한 평강공주는 어려서부터 부왕의 딸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 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이미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주는 기존 질서의 허구성을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은 나머지 그 허구의 기만을 능동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메리 테일리는 여성의 수동적 윤리(거짓 여성 윤리;pseudo-feminine ethic)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수동적 윤리는 여성적 성품들을 강조하거나 남성적 성품들을 강조하거나 간에 착취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한다. 이런 종류의 도전은 기본적으로 권력이 있는 자들을 공격하는 것이 ‘죄’라고 믿게 하여 의식을 끌어내리고, 억압의 구조들은 악으로서 인식되지 않게 만든다.

여성주의는 잠재적으로 지배적인 도덕 이념의 기초를 동요시키는데 필요한 통찰을 준다.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것은 사회적 허구의 껍질들이 하나씩 벗겨져 나가게 하는 각성의 과정이다. 그 과정은 그 자체의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허구성이 일정한 모양으로 드러나게 되면, 다른 곳에서 계속적으로 발견된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행동으로 자기 기만을 거부하는 것이다.⁹⁾

9) 메리 테일리 지음, 황혜숙 옮김, 『하나님 아버지를 넘어서』(이대 출판부, 1997), 제2쇄, 191-192면.

메리 테일러가 지적한 것처럼, 여성에게 길들여진 수동적 윤리는 억압의 구조들을 악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지배계층이나 절대 권력자의 지배 이념을 비판하는 것조차도 죄라고 믿게 만들어버림으로써 비판의 기능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린다. 그리고 하나의 허구성이 일정한 모양으로 드러나면 다른 곳에서도 계속 발견되듯이, 공주도 허구로 가득 찬 억압의 세계에 대항하여 처음에는 울음으로 대응하고 점점 자라서는 울음의 다른 방식, 곧 논리적으로 이치를 따지기도 하여 억압의 실체를 능동적으로 드러내었다.

3. 정체성 확립과 초월성-평강공주

3-1). 정체성 확립

평강공주가 억압된 세계에 대응하여 울곤 했을 때, 부왕은 딸을 바보 온달에게 시집보내겠다고 꾀했다. 이 부왕의 꾀함이 결국 부녀를 같은 공간에서 살 수 없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왕의 꾀함에 대한 약속 불이행이 평강공주가 집을 떠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처럼 언어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의 척도가 된다.

언어는 이념의 기본이 되어 인간의 의식, 무의식 세계를 관장하고, 인간관이나 세계관 혹은 사회의 질서를 전수시키는 역할을 한다. 인간은 무의식적, 반복적으로 언어의 구조를 받아들임으로써 언어의 습득 활용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언어내에 스며들어 있는 가치를 습득하게 된다. 우리가 평소에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들을 분석해 보면 일상 언어에 내포되어 있는 가치관을 찾을 수 있다.¹⁰⁾

부왕은 딸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꾀함을 했지만, 공주는 의식, 무의식적으로 왕의 말을 하나의 질서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막상 혼기에 임박해서는 온달이 아니라 고씨에게 시집보내려 하자, 공주는 '匹夫도 食言을 하지 않는 데 하물며 왕이 그러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언행일치를 주장하며 자신의 고집

10) 장필화, 『여성학 노트』, 1997년 2학기, 이대 대학원 여성학과, 65면.

을 꺾지 않는다. 공주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정운채는 “먼저 평강왕과의 대립 부분에서 평강공주의 주장은 왕권(王權) 내지 부권(父權)을 내세워 체제를 유지하려는 평강왕의 주장보다 더 철저하게 체제 옹호적”¹¹⁾이라고 하여 부왕보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왕권 내지 부권을 공고히 하려는 체제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그보다 앞서 공주가 왜 울었는지, 그 울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간과한 것이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주는 아버지라는 질서 체제에 순응할 수 없었다. 어려서부터 주체성이 강했던 공주는, 아버지로 대표되는 억압체제에 대한 불만족을 울음으로 드러내었고, 그 후에도 허위와 기만으로 억압하는 아버지를 논리적으로 따져 언행일치를 요구하는 것은 울음의 확장이다. 이미 정체성이 확립된 공주로서는 더 이상 허위와 기만, 억압의 상징으로 대표되는 아버지의 세계 속에서는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미련 없이 궁궐을 떠남으로써 아버지라는 현실의 벽을 뛰어넘었다.

정체성이 확립된 공주는 현실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재화(곧 귀중한 가락지 수십 개)를 몸에 지니고 바보 온달을 찾아 나서면서부터 여러 어려움을 겪지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울지 않는다. 단군신화에서의 곰은 금기를 지켜 곰으로서는 종지부를 찍고 여성이 되었으나, 평강공주는 그 반대로 아버지와 대립하고 궁중을 나오면서 공주로서는 종지부를 찍고, 자유로운 한 여성으로 재생한다. 공주라는 신분은 부왕의 딸이라는 굴레가 있었으나 그 굴레를 벗어 던진 공주는(공주의 신분으로서는 죽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체로서 거듭 태어나 무한한 생성력을 지닌다.

새로운 인간으로 재생한 공주는 주체적으로 살기 때문에 울지 않는다. 처음에 온달의 집에서 공주를 받아주지 않았을 때에도 울거나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 어린 언행으로 그들을 설득한다. ‘옛사람의 말에, 한 말의 곡식이라도 쟁을 수 있으면 오히려 족하고, 한 자의 베라도 제멜 수 있으면 오히려 족하다 하였습니다. 진실로 한 마음 한 뜻이라면, 반드시 부귀를 누

11) 정운채, 「선화공주를 중심으로 본 <무왕설화>의 특성과 <서동요> 출현의 계기」, 『포당 박용식 박사환력기념논총』(박이정, 1995), 341면.

려야만 같이 살 수 있는 것입니까?’ 하고 말한다. 이처럼 공주가 한 말의 핵심은 부귀가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이다. 數의 최소단위인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여 한 마음, 한 뜻이라면 어떠한 가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부귀에 둘러싸여 있었던 공주는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부귀가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임을 말하고 있다. 공주의 이러한 생각은 부귀를 중히 여기는 부왕과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없었음은 자명하다. 공주의 이러한 태도를 노동대중의 특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 설화에서의 평강공주의 형상에는 노동대중의 성격적 특징이 일정하게 체현되었다. 온달이 자기 말을 끈이 듣지 않고 달아나버렸을 때 공주는 그의 집 사립문 바깥에서 밤을 새우며 온달의 어머니를 설복시키기 위하여 “한 말의 곡식도 썰어서 함께 먹을 수 있고 한 자의 베도 기워서 같이 입을 수 있사옵다.”라고 옛사람의 말을 하면서 마음만 맞는다면 귀하고 천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한 데에서 보게 된다. 또 그는 지혜와 혜안이 있는 여성이다.....설화에서 평강공주에게 노동대중의 성격적 특징을 구비시켜 온달과 결합시키고 온달을 사위로 삼고 장군으로 출세하게 한 것은 행복한 생활에 대한 당시 민중들의 열원에 대한 예술적 구현이다.¹²⁾

노동자나 민중을 중심으로 한 세계에서는 공주의 성격을 노동대중의 특징으로 보고, 공주가 미천한 온달과 결혼하여 그를 장군으로 출세하게 한 것은 당시 민중들의 행복한 생활에 대한 열원을 구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설화의 전체적 성격으로 볼 때는 평강공주의 주체성이 중심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정체성이 확립된 공주는 주체적으로 살아가면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룰 수 있었기에 울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면서까지 자신의 삶의 태도를 고수한다.

공주의 끈질긴 노력으로 온달과 결혼한 공주는 삶의 의미를 한 가정에만 두지 않고, 그것을 확장하여 국가에까지 연결시킨다. 앞서 공주가 아버지의 억압된 세계에 울음으로 대응한 것은 한 가정의 부녀관계이고, 부왕의 언행일치를 요구하며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은 王者의 도리를 말하는 것으로 국가와 연결된다. 평강공주가 공주라는 껍질을 벗고 무한한 재생력을 지닌 여성으로

12) 박충록, 『한국 민중문학사』(열사람, 1988), 36면.

거듭 태어나 한 가정 안에서 효자로만 살아 왔던 온달을 국가에 헌신하는 인물로 만들기 위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간다. 공주는 제일 먼저 말(國馬)을 사오도록 한다. 온달이 그 말을 타고 기량을 기른 후 사냥에 나아가 실력을 발휘케 함으로써 온달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게 한다. 또 온달이 적과의 싸움에서 전공을 세움으로써 마침내 왕은 온달을 사위로 인정하고 벼슬까지 내리게 된다.

왕이 예를 갖추어 온달을 사위로 맞아들이고 벼슬까지 내린 것은 온달이 보여준 능력(사냥, 戰功) 때문이다. 바보라고 알려진 온달이 사냥에서나 전쟁터에서 특출한 능력을 발휘하자, 왕은 크게 놀라며 온달을 인정한다. 이 때 왕이 온달을 인정한 것은 결국 그의 딸 평강공주의 비범한 능력을 인정한 셈인데, 딸의 비범한 능력을 공인한 것은 딸이 다시 아버지의 세계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때의 부녀관계는 과거처럼 딸이 아버지의 말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인간관계로 발전한다.¹³⁾ 다시 말해서 왕은 한 인간으로 재생한 딸의 무한한 생성력과 주체적인 삶의 방식을 뒤늦게나마 존중한 것이다. 딸의 무한한 생성력이 바보이던 온달을 출중한 인물로 재생시켰기 때문이다.

3-2) 초월성

이 설화를 표면적으로 보면 공주가 전면에 나서서 사냥을 하거나 전공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평강공주의 행위를 사회적으로 과소 평가하여 '내조의 공'으로만 돌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평강 스스로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戰功을 세우도록 도와준 내조자의 역할로만 한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공주가 스스로 사냥을 하거나 전쟁터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온달을 통한 평강공주의 성취'¹⁴⁾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이 설화에서 실제로 중시해야 하는 것은 거듭 태어난 평강공주의 무한한 생성력이 바보이던

13) 왕이 통치하는 봉건사회에서 왕과 그 이외의 인물이라는 주종관계는 불변한다 할지라도, 딸을 대하는 왕의 태도는 궁중에서 생활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를 수 밖에 없다.

14) 김대숙, 앞의 책, 142면.

온달을 출중한 인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나라에서 바보라고 소문이 난 온달을 평강공주가 그녀의 무한한 생성력으로 거듭나게 했다는 것은 단순히 보아 넘길 일은 아니다. 이 설화에서 왜 온달이라는 인물을 ‘바보’라고 설정했는지도 깊이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바보이던 온달을 뛰어난 인물로 만든 것은 공주의 무한한 생성력과 초월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 설화가 『삼국유사』가 아닌 『삼국사기』에 수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달의 죽음 뒤에 공주의 신이한 행위를 특별히 기록한 것은 평강공주의 초월성이 온달이나 왕보다 우위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유가의 합리적인 입장에서 편찬된 『삼국사기』에 공주의 신이한 언행이 기록된 것은 특기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주로 인해 重臣이 된 온달은 양강왕이 즉위한 후 나라에 더 큰 공을 세우려고 신라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찾기 위해 싸움터에 나갔으나, 신라군에게 화살을 맞아 전사했다. 온달이 전사한 후 그의 屍身을 장사지내려고 했으나 靈柩가 땅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자, 공주가 와서 관을 어루만지며, ‘죽고 사는 것은 이미 결판이 났으니 마음 놓고 돌아가시오’하니, 그제서야 관이 움직여 장사지낼 수 있었다. 이러한 신이한 이야기는 유가의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이 부분을 빠뜨리지 않은 것은 평강공주의 초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온달의 靈柩가 움직이지 않은 것에 대해, 온달이 ‘자신을 위국 총절할 수 있는 인물로 만들어 준 공주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 그리고 그녀를 떠나야만 하는 애뜻함을 함축¹⁵⁾한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한다. 그러나 온달의 靈柩가 움직이지 않은 것은 공주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현실세계에서 아무리 왕이 절대권자라고 해도 왕은 靈柩를 움직일 능력이 없다. 또 현실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던 온달도 공주가 곁에 없으면, 죽음의 길도 마음 놓고 가지 못했다. 왕이나 온달, 그 누구도 새로운 세계(죽음)의 인도자가 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틀에 박힌 세계를 거부하고 언행일치를 주장하며 주체적인 삶을 찾아 나섰던 공주는 무한한 재생력을 지닌 한 여성으로 거듭 태어나 靈柩까지도 움직일 수 있었다.

15) 이혜순, 「김부식의 여성관과 유교주의」, 『고전문학연구』, 제11집(한국고전문학회, 1996, 12), 11면.

따라서 유가적인 세계관을 담은 『삼국사기』라 할지라도 공주가 온달의 靈樞까지도 관장한 것을 기술하여 공주의 우월성과 초월성을 재삼 강조했다. 이 설화는 陽이 陰을 따르는 좋은 예이다.

4. 정체성 찾기와 하나님의 딸-〈경희〉

4-1) 정체성 찾기

1918년 3월 『여자계』 제2호에 발표된 나혜석의 <경희>는 “분량으로 보나 작품 수준으로 보나 최초의 여성소설로 불리어도 좋을듯하다.”¹⁶⁾고 할 만큼 주목받는 여성소설이다.

나혜석은 1896년 증조부가 호조참판을 지낸 명문가에서 5남매 중 둘째 딸로 수원에서 출생했다. 구한말 군수를 역임했던 부친 나기정은 일찍이 개화사상을 접하면서 5자녀 모두 신식교육을 받게 하여 나혜석은 당시의 여성들로서는 드물게 고등교육을 받았다. 나혜석은 1910년 수원 삼일여자학교를 거쳐 1913년 진명여자학교를 졸업하고 동경 유학 중인 오빠의 권유로 1913년 일본 동경의 여자미술학교에 입학하여 한국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서양미술인 유화를 전공하게 되었다.

동경 유학시절 나혜석은 그림뿐만 아니라 문학이나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18세 때인 1914년에 일본 동경유학생 동인지 『학지광(學之光)』에 남존여비사상 철폐와 근대적 여권을 주장하는 <이상적 부인>이라는 글을 발표하여 전 유학생 문단과 지식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상적 부인>이라는 글을 통해 나혜석은 과거의 여성교육을 비판하고, 새로운 시대에 여성도 ‘그 시대의 선각자가 되어 실력과 권력으로 이상적 부인이 되지 아니하면 불가하다’고 하여 여성이 신교육을 받아 실력을 기르고 그 시대의 선각자가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1910년대부터 작품을 발표한 나혜석은 『창조』동인들보다 앞서서 문학활동을 했으며, 1920년대에 주로 활동했던 김명순, 김일엽과 더불어 여성해방을

16) 서경자 엮음, 앞의 책, 11면.

주장하는 소설을 쓴 초기의 여성작가이다. 새 시대의 새로운 인간상(여성상)을 모색했던 나혜석은 그녀가 1910년대부터 발표한 글들과 일생을 통한 사건들로 인해, 늘 세인들의 화젯거리가 되었고 오늘날에는 여성해방의 대명사, 여성해방의 선구자로 불리고 있다.¹⁷⁾

<경희>는 나혜석이 봉건잔재가 남아 있던 때에 여성의 새로운 인물을 형상화 한 소설이다. ‘<경희>는 애국계몽기 남녀평등과 여성교육론의 초기 여성해방의식이 드러나는 소설’¹⁸⁾로서 주인공 경희는 <은달>설화 속에 나오는 평강공주와는 그 출발이 다르다. 어려서부터 비범한 능력과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었던 평강공주는 자신을 억압하는 것에 대해 울음으로 대응하지만, 경희는 공부를 하면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나간다.

<경희>는 잘 짜여진 소설로, 이 작품은 1장부터 4장까지로 구분하여 작가의 의도를 분명히 밝혀 놓았다. 특히 이 작품은 ‘여성과 신교육, 여성과 일, 여성과 결혼, 여성과 자아실현’ 문제 등을 여성의 입장에서 그려 놓았다.

1장에서는 경희의 어머니와 사돈마님(언니의 시어머니)간의 대화로 시작한다. 사돈마님은 신교육을 받고 있는 경희가 일본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경희네 집으로 찾아와 경희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눈다. 평소에 사돈마님은 여학생들 험담이나 특히 일본가면 계집애 버린다고 말해오던 터라 내심으로는 타국에서 신교육을 받은 경희의 단점을 찾으려고 애를 쓰나, 경희 어머니는 신교육을 받은 딸을 대신하여 경희의 좋은 면들을 부각시킴으로써 구시대적 가치와 새로운 가치를 사이에 두고 두 여성간의 대립적인 면이 드러난다. 그러나 구시대적 질서를 존중했던 사돈마님은 차츰 경희에 대한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고 신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아 다음날부터라도 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겠다고 결심한다.

2장에서는 사회에서 소외 받고 있는 세 명의 여성이 신교육을 받은 경희에

17) 나혜석에 대한 자세한 것은, 서정자, 「나혜석 연구」, 『문학과 인식』(박문사, 1988) 참조. 이호숙, 「위악적 자기 방어기제로서의 에로티즘 <나혜석론>」, 한국여성소설연구회 지음, 『페미니즘과 소설비평』 근대편(한길사, 1995) 참조. 이배용 외,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2』(청년사, 1999), 218-227면 참조.

18) 서정자 엮음, 앞의 책, 286면.

게 탄복한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떡을 파는 떡장사는 신여성의 험담을 늘어 놓기를 좋아하나, 경희의 부지런하고 반듯한 행동을 보고서는 여학생들의 험담을 하지 않는다. 구식 여성을 머느리로 맞은 이웃집 아주머니는 머느리가 시집은 지 8년이 되도록 시어머니 저고리 하나도 꿰맬 줄 모르는 것에 한이 맺히는데, 아직 시집도 가지 않은 경희가 바느질이며 김치를 담그는 일 등을 기쁜 마음으로 척척 해내자 경희처럼 민첩한 머느리를 두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 한다. 경희네 집에서 부엌일을 하는 시월이는 온갖 허드렛일을 맡아 하면서 저절로 신세 한탄이 나오는데, 경희는 자기가 하는 것은 일을 함께 하면서도 고통스러워하기는커녕 ‘재미있다’고 함으로써 노동의 즐거움을 일깨워준다.

3장에서는 구시대적 질서를 존중하는 아버지와 결혼문제로 마찰을 빚는다. 경희 아버지는 경희가 신교육을 받았어도 날마다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는 기특하게 여기고는 있으나, 결혼에 대해서만은 구시대적 질서를 고집한다. 이에 비해 경희 어머니는 자신의 생전에 경희를 시집보내지 못할까 보아 염려하면서도 자신도 남편이 첩을 둔 일로 마음 상한 것을 생각하고 경희가 공부를 마치기 전에는 시집가지 않겠다고 하는 말에 동조하는 마음이 생긴다. 특히 경희가 부잣집에 시집가기를 원치 않는 마음을 ‘비단치마 속에 근심과 설움이 있다’고 함으로써 부잣집으로 시집보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결혼관과 정면으로 대립한다.

4장에서는 경희 스스로 자신과의 싸움을 벌인다. 결혼문제를 눈앞에 두고 부귀가 보장되고 탄탄대로인 길과 남의 천대를 감수하고 육체적으로 험한 일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수없이 꼬부라진 길을 가야 하는 길 사이에서 경희는 번뇌한다. 부귀의 길은 무엇보다 아버지가 원하기도 하고 자신의 내부 한 편에서도 꿈틀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으나 禽獸의 길이요, 험한 길은 그 가는 길이 험하고 고될지라도 禽獸와는 달리 제 힘으로 찾고 제 실력으로 얻어 참다운 기쁨을 얻는 길이다. 경희는 이 두 길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禽獸와 같은 편한 길을 버리고, 창조의 기쁨을 아는 사람의 길을 택한다.

이상에서 보듯, <경희>는 여성에게 신교육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한다. <경희>에서 주인공 경희는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성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데, 정체성을 찾은 경희가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방학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집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다. 먼저 집안에 ‘하하 허허’ 하는 웃음소리가 자주 들려 집안의 분위기가 무척 밝다. 그런데 그 웃음소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가 손으로는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이야기를 즐긴다.

경희는 지금 시원한 뿔마루에서 오래간만에 만난 오라버니땡과 앉아서 오라버니땡은 버선을 신고 경희는 얇은 재봉틀에 자기 오라버니 양복 속적삼을 하며 일본서 지낼 때에 어느 날 어디를 가다가 허마터면 전차에 칠 뻔 하였더라란 말, 그래서 지금이라도 생각만 하던 품이 아슬아슬하다는 말이며.....오라버니땡은 어느덧 바느질을 무릎에다가 놓고 “하하 허허” 하며 재미있게 들고 앉았던 때라.....옆에 앉아서 빨래에 풀을 먹이며 열심히 들고 앉았던 시절이도 혀를 푹푹 찬다. “아무렴 내 얼른 다녀 오려다.” 경희는 이렇게 대답하고 제 이야기에 재미있어서 하는 것이 기뻐서 웃으며 앞마루로 나간다.¹⁹⁾

신교육을 받은 경희는 힘든 일을 하면서도 ‘재미있다’고 여긴다. 인사하러 나온 경희의 손목을 잡은 사돈카님은 “꼭 시집살이한 손 같구나. 여학생들 손은 비단결 같았는데 네 손은 왜 이러냐”고 하자, 경희는 “살성(性)이 곱지 못해 그래요.”라고 간단히 대답한다. 이러한 대화 속에는 당시 여학생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바탕이 깔려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당시에 신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여학생들은 바느질을 못한다거나 빨래를 하지 않는다거나 살림살이를 할 줄 모른다고 하는 등 편견이 깔려 있었던 때이다. 이에 경희 어머니는 딸을 대신하여 “제 손으로 빨래해 입고 받까지 해 먹었다니까 그렇지요.”라고 하면서, “제가 제 고생을 시누라고 그러지요. 그거 누가 시키면 하겠습니까. 학비도 넉넉히 보내주지마는 그 애는 바쁜 것이 재미라고 한답니다. “고 전날 밤에 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이처럼 일을 하면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경희의 삶 속에는 경희의 인생관이 함축되어 있다. 경희는 돈이 부족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일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자신의 삶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다. 자신의 확고한 주관 아래 이론과 실천을 몸소 병행하는 경희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까지도 영향을

19) <경희> 13-14면.

끼친다.

나혜석은 경희가 서울과 일본에서 공부했을 때를 비교하여 서울보다 일본에서의 공부를 더 우수한 것으로 보고 일본 유학을 은근히 권장하기도 하여 자신의 일본 유학 경험을 은연중 과시하고 있다. 작품에서는 경희가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마루며 다락 등을 깨끗하게 청소하곤 했다. 이것이 경희가 집에 오는 그 전날 밤부터 기뻐하는 것이고 경희가 집에 온 표적이었는데, 일본에서 돌아온 경희의 소재법은 전과는 전혀 달랐다. 이미 일본에서 신교육을 받은 경희는 청소하는 것도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전과는 달리 건조적이고 응용적이며 가정학, 위생학, 도화 시간 등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실내를 정리한다. 전에는 킁킁한 다락 속에서 먼지 냄새에 눈살도 찌푸렸을 뿐 아니라 종일 땀을 흘리고 청소하는 것은 가족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지금은 킁킁한 속에서 제 몸이 이리저리 운동케 하는 것이 여간 재미스럽게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일 자체를 즐기는 것으로 변하였다. 풀을 췌는 시월이를 도와 불을 때면서도 재미를 느끼고, 빨래할 때 땀을 흐르는 것도 재미있다고 하고, 아무리 어렵고 지저분한 일을 해도 재미를 느끼며,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에 “경희는 또 오는 종일 제 일을 시작할 기쁨에 취하여 벌떡 일어나서 방을 나”²⁰⁾ 설만큼 일을 즐긴다. 또 경희는 보잘 것 없는 시월이에게도 인정을 베풀어주어 시월이로 하여금 탄복케 한다.

따라서 신교육을 받은 경희가 있는 곳, 머무는 곳은 항상 웃음소리가 들리고, 정리 정돈이 잘되어 주변이 반짝거리는데, ‘<경희>의 전체적 인상이 밝고 희망적인 것은 남녀 등장인물의 협조로 주인공의 의지가 실현되는 성취구조이기 때문이다.’²¹⁾ 이에 비해 경희가 떠나 있는 동안에는 집안이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것으로 묘사되어 여성이 신교육을 받아 주위 환경을 변화시켜야 함을 은연중 강조했다.

이렇듯 일본에서의 유학 경험이 청소 한 가지만 놓고 볼 때에도 전과는 달라 경희 스스로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 일을 고통스럽게만 여기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끼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놓는다. 뿐만 아니라 일

20) <경희> 34면.

21) 이호숙, 앞의 책, 100면.

본에서 공부하고 돌아오면 현실적으로도 ‘점잖은 일본사람들’에게도 존대를 받고, 집에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와 자기 회사의 일을 보아 달라고 간청하며 월급도 다른 사람보다 두 배는 받으니 일본에서의 공부가 현실적으로도 얼마만큼 유용한 지를 역설하고 있다.

신교육을 받은 경희는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들도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기를 바란다. 주체적인 삶을 살았던 평강공주는 자신의 능력을 오직 한 사람, 온달에게만 쏟았지만, 경희는 조선(朝鮮) 안에 여러 불행한 가정이 있는 것을 떠올리고 칼자루로 도마를 탁 치면서 굳게 맹세한다. 자신 뿐 아니라 자손, 친구, 문인(門人)들이 만들 가정도 그렇게 불행하게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 자신이 꼭 그러한 일을 하겠다고 굳게 맹세한 후 경충 된다. 경희가 경충 된 것은 자기가 결심한 것을 다지기 위함이며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된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일 것이다. 그리하여 이 일을 실행하는 첫 단계로 시월이의 고된 일을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기 시작한다.

경희 어머니가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한 것은 다음의 예에서도 잘 드러난다.

김 부인은 과연 알았다. 공부를 많이 할 수록 존대를 받고 월급도 많이 받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번질한 양복을 입고 금시곶줄을 늘인 점잖은 감독이 조그마한 여자를 일부러 찾아와서 절을 수없이 하는 것이라든지, 중일한 달 30일을 악을 쓰고 속을 태우는 보통학교 교사는 많아야 옥백스무 냥이고 보통 오백 냥인데 “천천히 놀면서 일 년에 병풍 두 짝 단이라도 잘만 놓아주시면 월급을 꼭 사십 원씩은 드리지요.” 하는 말에 김부인은 과연 공부라는 것은 꼭해야 할 것이고 하면 조금 하는 것보다 일본까지 보내서 시켜야만 할 것을 알았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에 경희가 “공부를 하면 많이 해야겠어요. 그래야 남에게 존대를 받을 뿐 아니라 저도 사람 노릇을 할 것 같아요.” 하던 말이 아마 이래서 그랬던가보다 하였다.²²⁾

일본까지 가서 교육을 받은 경희의 위상이 사회적으로 남성들보다 인정을 받게 되자, 경희 어머니는 재삼 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조그마한 여자에게 양복을 입고 금시곶줄을 늘어뜨린 점잖은 남자까지도 경희에게 절을

22) <경희>, 20면.

할 뿐 아니라 경희에게 주는 보수도 실제로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차이가 남으로써 여성교육의 위력을 실감한다. 평강공주는 온달을 이끌어 그를 나라에 공헌케 하여 벼슬을 받게 했었지만²³⁾, 경희는 스스로 공부하여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음으로써 접잡은 사람에게 절을 받고 현실적인 대우, 곧 월급도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받을 수 있게 된다. 경희의 이러한 사회적인 위상은 교육을 통해서 획득된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들이 신교육을 받아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하고, 여성이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은 곧 가부장제의 잔재 속에서 억압되어 있는 여성성을 해방하여 자아실현을 성취하는 것으로 보았다.

4-2). 하나님의 딸

신교육을 받은 경희가 일을 유희처럼 즐긴다고 하는 것은 노동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이 아니다. 이는 선민의식을 지닌 신여성이 육체적인 일까지도 앞장서서 해야 한다는 계몽성이 두드러진 것으로, 그만큼 현실성이 결여되었다. 일하기를 즐기는 경희가 평소에 일을 생각하거나 해야 할 일을 앞두고 '경총 똬다' '벌떡 일어난다' '내 손으로 한 밥맛이 어떤가 보아라. 히히히' 등과 같은 표현을 써서 그녀가 진정 일을 얼마나 즐기면서 하는 인물인지를 드러낸다. 그러나 나혜석이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나 빈곤층이 겪는 노동의 고통을 알지 못하듯 <경희>는 당대 빈곤층의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작품이다. 이에 대해 이호숙이 '경희의 의식수준은 빈곤과 가부장의 억압이라는 이중적 곤경에 처해 있던 당대의 보편적 여성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부르주아 수준이며, 부르주아 페미니스트'²⁴⁾라고 지적한 것처럼 <경희>에서는 빈곤과 노동의 고통이 현실성을 띄지 못하고 관념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희는 절대 빈곤층의 노동에서 오는 고단함이나 중압감보다 선민의식을 앞세워 관념화된 일을 즐길 뿐이므로 힘든 일을 하면서도 그녀는 힘이 솟

23) 평강공주가 살았던 시대에는 현실적으로 여성이 교육을 통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비범한 능력을 지닌 평강공주가 바보이던 온달을 이끌어 출중한 인물로 만들었고, 온달의 靈柩를 움직이게 함으로써 공주의 초월성을 강조했다.

24) 이호숙, 앞의 책, 99면.

고 명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토록 명랑하고 주체적으로 일을 하기 좋아하는 경희가 결혼문제로 아버지와 대립한 후 사방 방문을 꼭꼭 닫고 ‘흑흑 느껴울고, 그쳤던 눈물이 다시 비오듯 쏟아지는’ 이유는 주체적인 존재로서의 경희가 아니라 아버지의 딸이라는, 가부장제 하에서 자식은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현실 때문이다. 평강공주와 마찬가지로 경희는 자신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때에는 아무리 험하고 힘든 일이라도 힘이 솟고 즐겁게 살아갔으나 아버지의 딸로서 아버지의 뜻을 무조건 좇아야 하는 현실 앞에서는 눈물이 비오듯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평소에 결혼문제를 제외하면 경희가 아버지와 갈등을 일으키고 대립해야 할 이유가 없었으나, 이번만큼은 아버지도 물러설 태세를 보이지 않고 강압적으로라도 자신을 시집보내려 하자 경희는 피로워한다. 구시대적 가치를 고집하여 딸을 시집보내려는 아버지와 자아실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여성 사이의 갈등은 아버지가 ‘계집애라는 것은 시집가서 아들딸 낳고 시부모 섬기고 남편을 공경하면 그만’이라고 하자, 경희는 ‘지금은 계집애도 사람이라 해요. 사람인 이상에는 못할 것이 없다고 해요. 사내와 같이 돈도 벌 수 있고, 사내와 같이 베풀도 할 수 있어요. 사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는 세상’이라고 답변하는 부녀간의 대화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딸을 꼭 시집보내야만 하고 딸의 역할을 가정에만 한정시키는 것은 유교사상의 인간관에서 비롯되었다. “유교사상의 인간관은 가부장 체제의 형성과정에서 남자를 국가 구성원인 民의 일원으로 본데 반하여 여자는 가족구성원의 일원으로 제도화”²⁵⁾하여, 경희 아버지도 가부장으로서의 권위로 딸의 의사를 무시한 채 여성이라는 존재를 남성에게 종속시키려 했다. 이에 반해 경희는 지금은 시대가 이미 달라져서 ‘여성도 사람’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여성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동등한 인격을 지니고서 돈도 벌고 베풀도 할 수 있고 사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항변함으로써 여성이 종속적인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인 존

25) 장필화, 앞의 책, 57면.

재임을 분명히 했다.

아버지에게 여성이 주체적인 존재임을 밝히고 비단치마 속에 근심과 설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경희는 두 갈래 길에서 괴로워한다.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평생 부귀를 누리다가 죽는 길과 평생 천대를 받으며 제 팔이 아프도록 보리방아를 찧어야 겨우 얻어먹고 사는 길 중에서 경희는 갈등한다. 평생 부귀를 누리는 길은 남자에게 종속된 삶이요, 험난한 길은 고된지라도 여성으로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길이다. 경희는 부잣집으로 시집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에게 顔子의 ‘一箪食와 一瓢飲에 樂亦在其中’이라는 말로써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사람이 먹고만 살다 죽으면 사람이 아니라 禽獸라고 항변한 후 보리밥이라도 제 노력으로 제 밥을 제가 먹는 것이 사람이라고 한다. 그리고 조상에게서 그대로 물려받은 남편의 그 밥을 또 그대로 얻어먹는 것은 집에 있는 개와 같다고 함으로써 여성의 주체적인 삶을 무엇보다 중시했다.

두 갈래 길에서 괴로워하던 경희는 마침내 자신이 가야할 길을 찾게 된다.

그렇다. 고(苦)로움이 지나면 낙(樂)이 있고 울음이 다하면 웃음이 오고 하는 것이 금수와 다른 사람이다. 금수가 능(能)치 못한 생각을 하고 창조를 해내는 것이 사람이다. 사람이 번 째, 사람이 먹고 남은 밥찌꺼기를 바라고 있는 금수, 주면 좋다는 금수와 다른 사람은 제 힘으로 찾고 제 실력(實力)으로 얻는다.....경희도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여자다. 그러면 여자라는 것보다 먼저 사람이다. 또 조선사회의 여자보다 먼저 우주(宇宙)인 전인류(全人類)의 여성이다. 이철원 김 부인의 딸보다 먼저 하나님의 딸이다.....오냐, 사람이다.....오냐, 이 팔은 무엇 하자는 팔이고 이 다리는 어디 쓰자는 다리냐? 경희는 두 팔을 번쩍 들었다 두 다리로 경충 뛰었다.....경희의 정신은 황홀하다.²⁶⁾

경희가 남성에게 종속된 삶, 곧 禽獸나 집에 있는 개와 같은 삶을 거부하고 禽獸가 하지 못하는 창조적인 삶을 택함으로써, 그녀는 사람의 길을 가고자 한다. 더 나아가 경희는 자신이 여자이기 전에 사람이며, 부모의 딸이기 전에 하나님의 딸임을 자각하고 아버지의 뜻을 좇아야 하는 三從之道에서 해방된 기쁨을 ‘팔을 번쩍 들었다 두 다리로 경충 뛰는 것’으로 대신했다. 앞에서 살

26) <경희> 41-42면.

펴본 바와 같이 경희가 ‘경총 뛰는 것’은 자신의 결심을 재삼 다지기 위함이고, 자신의 결심에 대한 만족감을 스스로없이 나타낼 때에 하는 행위이다.

하나님의 딸로 재생한 경희는 어떠한 길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여자이기 전에 사람으로서 자기의 길을 주체적으로 갈 것임을 스스로 다짐했다. 그리고 경희는 자기의 능력이 닿는 한 드넓은 세계로 나아가 힘껏 일할 것임을 재삼 강조했다.

5. 결 론

본고에서는 『삼국사기』에 수록된 설화 가운데 여성의 우월성을 강조한 고구려의 평강공주와 1910년대 여성해방의 선구자로 불리는 나혜석의 작품 <경희>의 삶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1. 어려서부터 비범한 능력과 정체성이 확립된 평강공주가 궁중에 있을 때 자주 운 것은, 아버지로 대표되는 기존 질서체제(억압)에 대한 저항이며, 허위와 기만으로 상징되는 아버지의 세계 속에서는 자신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평강공주가 자란 후 부왕에게 논리적으로 따져 언행일치를 주장하는 것도 울음의 다른 표현이자, 억압에 대한 울음의 확장이다.
2. 아버지와 대립한 후 궁궐을 떠난 평강공주는 부왕의 딸(공주)로서는 종지부를 찍고, 무한한 재생력을 지닌 여성으로 다시 태어난다. 새로운 여성으로 재생한 평강공주는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도 울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을 받아주지 않으려 하는 온달 모자에게 능동적으로 ‘한 마음, 한 뜻’을 강조하여 그들을 설득한다. 온달과 결혼한 평강공주는 온달의 능력을 신장시켜 그를 국가에 공헌하는 인물로 만들어 부왕에게도 인정받게 하고 벼슬도 받게 한다.
3. 현실세계에서 평강공주의 도움으로 능력을 인정받았던 온달은 죽어서도 공주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면 저승길에도 가지 못했다.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거듭 태어났던 공주는 그녀의 초월성으로 인해 죽은 자도 인

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으니, 이는 현실성보다는 설화의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세계관을 추구하는 『삼국사기』라 할지라도 평강공주가 온달의 靈柩까지도 관장한 것으로 기술한 것은 평강공주의 능력이 왕이나 온달보다 우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이며, 이러한 평강공주의 초월성을 설화의 세계 속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4. <경희>의 주인공 경희는 평강공주와는 달리 어려서부터 비범한 능력을 지녔거나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던 것이 아니라, '배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성의 정체성을 찾는 여성이다. 경희가 특히 일본에서 신교육을 받은 후로는, 청소를 할 때에도 단순히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바를 응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집안에서 힘든 일을 할 때에도 노동을 유희처럼 즐기면서 하기 때문에 이론과 실천을 병행하는 경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뿐 아니라 경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웃음이 있고, 지저분하거나 어수선했던 집안도 경희가 오면 반짝거리거나 빛나는 집으로 변하곤 한다.
5. 신교육을 받은 경희는 남성들보다 사회적으로도 훨씬 대접을 받는다. 곧 점잖은 일본인도 찾아와 경희에게 절을 할 뿐 아니라 보수도 신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보다 월등하게 많아서 신교육의 위력을 현실적으로 실감케 한다. 경희는 당시 가부장제 하에서 많은 여성들이 축첩제 등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생각하고 자신은 부잣집으로 시집가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힘써 일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이러한 가정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도 누리기를 희망한다.
6. 자신의 결혼문제로 아버지와 대립한 경희는 '혹혹 느껴 울면서' 마음속으로 갈등을 일으킨다. 부귀가에 시집을 가면 육체적으로는 안락하겠지만, 이는 禽獸의 길이요, 비록 고단할지언정 자신의 육체로 일을 하면서 사는 길은 창조자의 길이요, 사람의 길이다. 이 두 길 중에서 피로워하던 경희는 자신이 여자이기 전에 사람이고, 부모의 딸이기 전에 하나님의 딸임을 자각한다. 그리하여 三從之道가 봉건잔재의 족쇄임을 깨닫고 거기에서 해방되자, 경희는 禽獸와는 다른 사람의 길을 선택하고 황홀해한다. 다시 하나님의 딸로 재생한 경희는 남성과 동등한 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능력이 닿는 한 사회에서 힘껏 일할 것임을 다짐하는데, 이는 평
강공주의 초월성과는 달리 현실세계를 바탕으로 했다.

Abstract

A study on the lives of Princess Pyunggang and Kyunghee

Lee Keum-Hee

In this script it is examined *Princess Pyunggang* which is strongly expressed women's superiority among the tales of *Samkooksaki* and *Kyunghee* which is written by Hye-suk Na who is a pioneer of feminine rhyme in 1910's. Those are the results.

Princess Pyunggang was extraordinary and had a concrete identity from when she was a child. However, she cried so often when she lived in the royal palace. Her crying is the resistance against the established social system (the oppression). She couldn't be a master of her own life in the Fathers' world which is symbolized to a falsehood and deception.

Princess Pyunggang left the royal palace after having been opposed to her father. She had a full stop as a princess and she had a second birth as a woman who has an unlimited revival power. When she encounters risks, a new woman Pyunggang never cries again because she becomes a master of her own life.

In order to prove Pyunggang's ability is much more powerful than those of King and Ondal, it is expressed only Pyunggang could make Ondal's coffin move.

Kyunghee finds her identity through 'learning'. In aspect of social activities new-educated Kyunghee is more respectable than men. Actually Kyunghee was in ecstasies when she realized she is a daughter of God before a woman and a daughter of her parents.

She revived to a daughter of God and she determined that she would work hard as much as men do. That means she thinks she is the same object of character of a man. *Kyunghee* describes the world in real. It is different from *Princess Pyunggang* which is based on mythology.